

봉건시대 벽 넘은 지조와 파격의 천재

《매월당 김시습》 펴낸 이종호씨

천재의 품성 가운데 하나는 '파격성'이다. 그것은 범인들이 전전공공하는 격식이나 규범의 외투를 훌훌 벗어던지는 자유자재의 경지다. 하지만 범인들의 찬탄과 시샘을 불러일으키는 천재의 파격성이 반드시 행복과 등식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때로 자신을 옥죄는 울가미나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공격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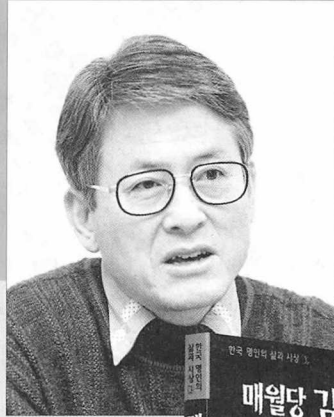
지조와 의리정신의 권화

조선 초기의 천재적 문인인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이 그랬다. 장안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천재적 자질을 타고났으면서도 평생 방랑벽과 기이한 행적으로 못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그는 봉건시대 천재의 행과 불행을 온몸으로 증언하며 살다간 인물이었다. 역사학자 이종호씨(56)가 펴낸 《매월당 김시습》(일지사)은 한 불우한 천재에 대한 기록이다.

“김시습은 지조와 의리정신의 ‘권화’(權化)이자 일상의 구속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생을 살다간 인물입니다. 모든 천재들이 그렇듯이 그도 천재와 광기의 양면성을 지녔죠. 쫓겨난 군주에 대한 절개가 그를 지탱한 힘이었다면, 떠돌이로 기행을 일삼던 것은 그의 또 다른 면모입니다.”

김시습의 천재성은 어린 시절부터 꽃폈다. 그는 태어난 지 8개월만에 글을 알았고 3세 때 시를 지었다. 5세가 되자 《대학》과 《중용》을 배워 뜻을 통할 수준에 이를 정도여서 신동이란 소문이 자자했다. 그의 소문은 궁중에까지 알려져 세종이 신하를 시켜 그의 자질을 시험했다. 그의 천재성을 인정한 세종은 하사품으로 비단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천재는 불운이란 낙인을 달고 태어나는지도 모른다. 김시습에게 불행은 10대 후반에 찾아왔다. 15세 이후 3년 동안 모친과 외숙모를



이종호씨



차례로 잃었고 세종까지 세상을 떠난다. 19세 때는 과거에 낙방하는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결혼생활도 행복하지 못했다. 인생

의 무상함을 느낀 그는 점차 불교에 빠져들어가다.

그의 삶을 뒤흔든 것은 불의한 정치권력이었다. 21세 때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륜이 어그러진 세상에 절망한 그는 과거 시험을 위한 책을 불사르고 불가에 입문한다. 이후 그의 삶은 죽을 때까지 방랑과 기행의 긴 여정이었다. 뒷간의 똥통에 빠지는가 하면 시를 지어 계곡물에 띄워 보내고 승려임에도 술과 여자에 거침이 없었다.

“당대를 앞서갔다는 면에서 김시습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서경덕에 앞서서 ‘기일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주권재민 사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간의 이익추구 본성을 간파했죠. 그가 학자로서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다면 후대에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하지만 김시습은 독창적인 ‘아이디어 맨’이었지 엄밀한 체계를 세운 학자는 아니었다고 이씨는 강조한다. 학자들은 흔히 김시습이 유·불·도(儒佛道)의 3교를 회통(會通)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에 따르면 이는 피상적인 관찰이다. 그는 유·불·도의 근본취지는 동일하다고 말했지만, 유교의 입장에서 불교를 비판하고 불교의 관점에서 유교의 약점을 지적했다.

이성과 열정이 공존한 모순의 인물

김시습은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지만 한편으론 모순의 인간이기도 했다.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고 단종의 초혼제를 지낸 그였지만, 세조가 벌이는 불경의 국역사업에 참가하고, 원각사의 낙성식에 참가해 세조를 찬양하는 시를 짓기도 했다. 인륜의 원칙에서 세조를 배척하더라도 왕의 공적은 인정했던 것이다.

“그는 성종 때 관직을 얻기 위해 환속하기도 하지만 끝내 좌절하고 말죠. 유학자로서 자신의 포부를 펼쳐보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승려의 신분으로 불교를 비판했지만 유교는 언제나 수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유학을 내면화했지만 혼전 성관계를 인정하는 모순도 범하죠. 한마디로 김시습에게는 냉철한 이성과 비합리적 열정이 공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김시습은 천재적 사상과 자유분방한 행적으로 당대의 한계를 뛰어넘었지만, 유학적 지식인이라는 한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 시대에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 “이해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절의와 바른 것을 추구하는 김시습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는 게 이씨의 답변이다. - 박천홍 기자